

“명절맞아 고유 문화 배웠어요”



지난 14일 '추석 한마당 잔치'를 개최한 서니베일의 다솜 한국학교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학생들이 강강술래를 하고 있다. [사진=다솜한국학교]

한국 최대 명절 추석에 앞서 한국학교 학생들이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 행사가 열렸다.

서니베일의 다솜 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지난 14일 '추석 한마당 잔치'을 열고 강강술래, 씨름 등 추석 놀이의 기원에 대한 교육과 놀이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동영상을 보며 전통놀이에 대해 배우고 퀴즈를 풀며 한국의 얼을 되새겼다.

강강술래 놀이에서는 '남생아 놀아라'라는 노래에 맞춰 몇몇 학생들이 원 안으로 들어가 막춤을 추기도 했고 '고사리 꺾기'로 원을 4개로 만들기도 하며 전통놀이를 체험했다.

씨름 시간에는 살바 매는 법 등을 배우며 교사들과 학생들간의 겨루기가 이어졌고 오색 송편을 먹으며 추석의 맛을 느꼈다.

최미영 교장은 “한가위를 맞아 학생들이 처음 접해보는 강강술래 등의 전통 놀이를 굉장히 흥미로워 했다”며 “추석의 뜻을 되새겨 보는 즐거운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황주영 기자 sonojune@koreadaily.com